

‘광복절 마케팅’으로 침체된 소비 띄운다

롯데마트, 광어·전복 ‘광복회’ 할인전에 삼겹살·쇠고기 반값 스타벅스, 광복 76주년 컵·텀블러 출시...CU, 독도막걸리 내놔 조달청, 독도 여행상품 개발...하나은행, 청약저축 ‘주거독립만세’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사흘에 걸친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전 산업계가 침체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판촉전에 나선다.

광주지역 4개 롯데마트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광어와 전복회를 결합한 광복절 이색 상품 ‘광복회’를 판매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엘포인트 회원이라면 광어회 300g 안팎과 전복 2마리(냉장)를 행사 카드로 결제 때 기존보다 20% 저렴한 2만98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황금 연휴를 집에서 보내는 고객을 위한 다양한 할인전도 펼쳐진다. 12-18일 국내산 삼겹살·목심과 호주산 쇠고기 등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은 최대 반값 할인 판매한다.

14-15일 이틀 동안에는 대표적 ‘집콕’ 먹거리인 즉석밥과 즉석죽을 두 개 사면 한 개를 더준다. 2021년 햅쌀 4kg은 1만8800원에 살 수 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광복 76주년을 기념해 오는 15일부터 ‘21 코리아 머그’와 ‘21 SS 코리아 텀블러’ 등 광복절 상품 2종을 한정 판매한다. 이들 상품에는 목련과 참새 문양을 넣었다. 스타벅스는 ‘송고’와 ‘고귀’의 꽃말을 가진 목련과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참새를 대표 문양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삼일절과 광복절 기념 상품 수익금으로 독립문화유산 보호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편의점 CU는 ‘독도지킴이’를 내건 막걸리와 불고기 간편식 상품을 내놓았다.

‘독도 막걸리’는 국내산 쌀에 무궁화 추출물을 배합하고 울릉도의 해양심층수를 더해 빚은 술이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표기했던 1990년 10월25일 고종황제의 칙서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제품 가격을 1900원으로 매겼다.

‘독도 고기떡볶이 오징어불고기’ 도시락은 울릉도에서 즐겨 먹는 오징어와 부지깽이나물로 만들었다.

상품 모두 패키지에 독도를 배경으로 태극기를 들고 있는 독도 강치(바다사자)를 삽입해 독도 관련 상품임을 강조했다.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로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라는 문구도 삽입했다.

이들 상품의 판매 수익금 일부는 사단법인 독도 사랑운동본부에 전달돼 독도 수호 활동 등에 사용된다.

CU는 독도의 우편번호인 40240을 표기한 ‘독도 소주’ 815 한정판도 8150명 내놓았다.

하나은행은 광복절을 지양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행사 ‘주거독립 만세’를 오는 13일부터 진행한다.

오는 10월까지 1991년-2004년생 청년 고객

중하나은행 스마트폰뱅킹 앱 ‘하나원큐’를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및 자동이체 등록을 완료한 ‘만 세 명(1만3명)’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상품권을 선착순 제공한다.

이들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10만원 이상 신규가입 및 자동이체 1회 이상을 완료하면 5명을 별도 추첨해 청년주거독립 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연말까지는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과 1년제 ‘내집마련 더블업 적금’을 같은 날 신규 가입하는 손님 5만명에게 특별 금리 연 1.1%를 더해 최대 연 3.3%(8월 기준-세전)의 ‘내집마련 더블업 적금’ 금리를 제공하는 행사도 병행한다.

조달청은 광복절을 맞아 ‘독도 체험’ 여행상품을 개발해 나라장터 청약소플몰(g2b.go.kr)에서 공공기관에 제공한다.

독도(울릉도 포함)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독도를 체험할 수 있는 ‘랜선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 30년간 주요 경제지표서 일본 추월”

전경련 발표 경쟁력·신용 등 앞서

한국이 지난 30년간 주요 경제 지표에서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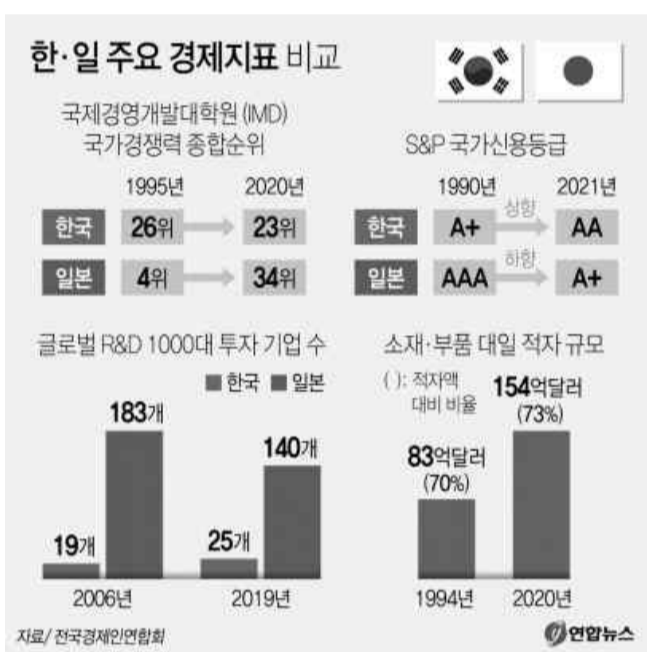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광복절을 앞두고 1990년 이후 한일 간 경제·경쟁력 격차 변화를 비교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전경련은 거시경제 등을 분석해 국가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순위를 살펴본 결과 1995년 각각 26위와 4위였던 한국과 일본의 순위가 2020년 23위, 34위로 바뀌며 한국이 역전했다고 설명했다.

S&P,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현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일본보다 2단계 높다. 또 물가와 환율 수준을 반영해 국민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1인당 경상 국내총생산(GDP)도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2018년 한국(4만 3001달러)이 일본(4만 2725달러)을 추월했다.

제조업 경쟁력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앞질렀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CIP)에 따르면 1990년 한국과 일본의 순위는 각각 17위, 2위였지만 2018년에는 한국이 3위로 올라가고, 일본은 5위로 떨어졌다.

거시경제 지표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축소됐다. 1990년 한국과 일본의 명목 GDP 수준은 각각 17위, 2위였지만 2020년 한국은 10위를 차지



하면서 3위로 떨어진 일본과 격차를 좁혔다.

한국 수출액도 2020년 기준 5130억 달러로 일본의 80% 수준까지 뛰어오르는 등 대외부문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빠르게 추격했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기초기술 강국인 일본에 크게 뒤졌다. 글로벌 연구개발(R&D) 1000대 투자 기업 수에서 2020년 기준 일본은 한국보다 5배 이상 많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소재·부품 분야에서 한일 경쟁력을 나타내는 한국의 소재·부품 대일(對日) 적자 규모는 1994년 83억 달러에서 2020년 154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울러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경쟁력을 나타내는 노벨과학상 수상자도 한국은 전무했지만 일본은 지난해까지 24명을 배출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연합뉴스



지역작가와 협업 에코백 써보세요 12일(주)광주신세계 직원들이 이다희 작가(21회 광주신세계 미술제 신진 작가상 수상)와 협업해 만든 친환경 천가방을 선보이고 있다. 가방 제작에는 조선호텔에서 폐기되는 린넨이 쓰였으며, 13일부터 26일까지 신세계 제휴카드로 당일 10만원 이상 구매한 선착순 1000명 고객에게 증정된다. <광주신세계 제공>

‘윤리준법경영 인증제’ 한전, 시범 도입한다

국민권익위와 업무 협약

한국전력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승일 한전 사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5개 시범 운영기관장(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연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은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 운영기관 업무협약’을 맺었다.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는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시행되는 정부차원의 수준진단·평가제도이다.

윤리준법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K-CP) 도입한 뒤 심사를 통해 인증이 진행된다. 주요 평가항목은 최고경영자(CEO) 반부패 실천의지, 반부패 위험 대응능력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9일 시범 운영기관으로 한전을 포함한 6개 기관을 선정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부패방지 및 ESG경영 등 효율적인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 도입방안 마련 ▲윤리준법경영을 약화시키는 부패 리스크의 예방·탐지 및 개선 체계 마련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등이다.

한전은 지난 2019년 윤리준법위원회를 신설하고, 올해 1월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ESG위원회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한전 국민감사관 제도도 병행되고 있다. 전사 차원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건전여신 5조원 달성

우량여신 달성탑 행사

NH농협은행 광주본부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는 12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건전여신 5조원 달성에 따른 ‘우량여신 달성탑’ 수상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여신잔액 5조원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 2019년 5월 말 여신잔액 4조원을 달성한 지 2년 만의 성과이다.

광주본부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대출금을 매년 100%씩 늘려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전세자금대출과 NH새희망플러스대출 등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에도 힘써왔다.

농협은행 ‘우량여신 달성탑’은 기준금액 이상 여신금액을 달성하면 주어진다. 기준금액은 연체 중인 여신금액을 제외한 산정되며 건전여신 추진에 대한 대내외적인 공신력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고 농협은행 측은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540,000,000원

상담 010-3733-3933